

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

<25.4.16, 한-EU연구협력센터>

○ 집행위,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 완화 제안 철회(3.20)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호라이즌 유럽 성평등 계획 (Gender Equality Plan, GEP)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던 제안을 철회함
- 호라이즌 유럽 전반의 서류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5년 워크프로그램 부록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관련된 교육 및 자원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축소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규정 변경이 혼란이나 추가적 행정비용을 야기하고 성평등과 같은 EU 핵심 가치를 훼손한다며 연구 커뮤니티와 회원국의 반발을 받음
- 이에 따라 올해 GEP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규정 개정 논의는 2026년과 2027년을 목표로 재개될 예정. 첫 논의는 4월 29일로 예정됨

○ 회원국,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RA Act)에 긍정적 반응(4.14)

- 지난 4월 4일 개최된 ERA 법안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서 EU 회원국 정부는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uropean Research Area Act, ERA Act) 제정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함을 밝힘
- 집행위는 ERA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GDP 3% 연구개발 지출 목표 이행, 연구 보안, 오픈 사이언스, 연구 인프라 등을 제안
- 회원국들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ERA 법안을 사용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으나, 교육 분야는 회원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문 자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 중임

※ 집행위는 회원국·준회원국의 연구혁신 주요 영역 진척도를 분석한 ERA 대시보드와 스코어보드를 발표. EU가 오픈사이언스, 연구 인프라, 성평등, 글로벌 참여 등에서 진전을 이뤘으나, 기관간 또는 산학간 협력 강화나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함

- (기타) ▲“미국 학문 자유의 위기, 전 세계 학계가 연대해야 할 것”(4.10)
▲집행위, 2024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대시보드·스코어보드 발간 ... ERA 우선순위에 진전 있었으나 지속적인 투자 필요(4.15) ▲유럽연구위원회(ERC), 기초연구 약화 우려 속 기초연구와 경쟁력 간의 연계를 위한 방안 논의(4.14)
▲유럽의회조사처(EPRS),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4.7)